



OPEC 감시위원회 회의결과와 전망

OPEC (석유수출국기구) 감시위원회가 지난 9월 23~27일 오스트리아 수도 빈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회의는 지난 6월 총회에서 쿼터 규모조정 권한을 부여받았을 뿐 아니라, OPEC 산회원국이 참여하였기 때문에 형식은 감시위원회이나 실질적으로는 임시총회 성격이 강하였다. 그 회의결과는 4/4분기 쿼터를 1백만b/d 늘린 20.5 백만b/d로 상향조정하되 그 배분방법은 회원국의 기존 쿼터점유율에 따르도록 하였다.

이러한 회의결과는 쿼터문제의 근본적인 해결과는 동떨어진 것이어서 그 실효성이 의문시된다. 첫째, 쿼터규모면에서 볼 때 현재의 생산수준(22백만b/d 내외)을 크게 밀돌고 있으며, 다수 회원국(사우디,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 등은 21.5백만b/d 쿼터희망)의 희망에 미치지 못하였다. 더우기 쿼터설정의 주요 참고사항인 OPEC사무국측의 4/4분기 對OPEC원유수요전망(22.32백만b/d)과도 큰 격차가 있다. 둘째, 이번 회의는 최대 논점인 쿼터배분방식에 있어서 쿠웨이트·아랍에미리트(각각 150만b/d내외의 쿼터 요구)등의 우선배정요구를 수용하지 않았다. 그렇다고 해서 이들 불만국

의 쿼터위반생산에 대해 어떤 제재조치를 강구하지도 또 생산자제를 설득하지도 못하였다. 따라서 이들 국가는 自國에 부여된 쿼터수준에 구애되지 않고, 현재의 독자적인 생산수준을 당분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번 회의말미에 이란에 의해 제시된 신규쿼터(案)은 쿠웨이트·아랍에미리트 등에 우선배정을 인정하는 한편, OPEC쿼터의 실효성을 높힐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으나, 이 제안은 次期 총회에서의 집중논의사항으로 간주되었다.

OPEC쿼터는 상반기 18.5백만b/d, 3/4분기 19.5백만b/d, 4/4분기 20.5백만b/d로 금년들어 세차례 조정되었다. 그런데 쿼터와 원유생산수준을 비교하면, 1/4분기에는 150만b/d, 2/4분기 이후에는 230~240만b/d 초과생산이 계속되어 왔다.

4/4분기 原油생산은 대부분의 국가가 쿼터를 준수하고 쿠웨이트·아랍에미리트 최소규모로 생산을 자제한다고 하더라도 21.4백만b/d이상은 불가피할 것 같다. 4/4분기 OPEC평균유가는 배럴당15~18달러의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

OPEC 쿼터와 원유생산

(단위 : 백만B/D)

	2 / 4 분기		3 / 4 분기		4 / 4 분기	
	쿼터	생산	쿼터	생산	쿼터	생산전망
사우디아라비아	4.524	5.0	4.769	5.0	5.012	5.1
이 란	2.640	2.9	2.783	3.0	2.925	3.0
이 라 크	2.640	2.7	2.783	2.8	2.925	3.0-3.3
쿠 웨 이 트	1.037	1.7	1.093	1.8	1.150	1.5-1.8
아 랍 에 미 리 트	0.988	1.5	1.041	1.9	1.095	1.5-2.2
카 타 르	0.312	0.4	0.329	0.4	0.346	0.4
알 제 리	0.695	0.7	0.733	0.7	0.771	0.7
가 봉	0.166	0.2	0.175	0.2	0.185	0.2
리 비 아	1.037	1.0	1.093	1.1	1.150	1.1
나 이 지 리 아	1.355	1.6	1.428	1.8	1.501	1.5-1.8
인 도 네 시 아	1.240	1.2	1.307	1.2	1.374	1.3
에 콰 도 르	0.230	0.3	0.242	0.3	0.254	0.3
베 네 수 엘 라	1.636	1.6	1.724	1.7	1.812	1.8
합	18.5	20.8	19.5	21.9	20.5	21.4-23.1